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http://www.motie.go.kr

2017 1월 5일(목) 09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'17.1.5(목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
담당과장	황수성 과장(044-203-4210)	담 당 자	우성훈 서기관(044-203-4211)

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
“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! ”

- 수출 5,100억불 이상 달성으로, 3년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 -

- 12대 신산업에 민·관 합동 17조원 투자, 스마트공장 5,000개(누적) 구축 등으로 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-

- 中企 성장을 위한 103조원 규모 정책금융+1조원 규모 R&D 지원 -

- 원전 등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등에 16조원* 투자 -

* 에너지안전 8.4조원,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.2조원

【 Ⅰ. 업무보고 개요 】

□ 산업부 등 5개 부처(기재부, 국토부, 공정위, 금융위)는 1.5일(목) 09:30, 정부서울청사(별관 국제회의실)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하였음

○ 이번 업무보고는 ‘튼튼한 경제’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,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, 장관 주형환)는 **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**을 발표함

□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‘**수출 플러스 전환**’, ‘**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**’, ‘중소·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**및 소상공인 활력제고**’, ’**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**‘ 등 **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**를 발표함

<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 >

수출 플러스 전환	❶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❷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❸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·질적 고도화
구조조정 가속화/ 4차 산업혁명 대응	❹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❺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
중소기업 성장지원/ 소상공인 활력제고	❻ 중소·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
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	❼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❽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❾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

【 Ⅱ. 업무보고 주요 내용 】

□ 4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산업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1 **첫 번째 핵심분야**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,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**'수출의 플러스 전환'**임

❶ 수출 품목·주체·시장·방식 등 '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'하여 금년도 5,100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*

* 목표 달성시 '17년 수출은 전년대비 2.9% 증가하여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**3년 만에 흑자로 전환**됨 ('15년 : △8%, '16년 : △5.9%)

○ (품목) 수출 1천만불 이상의 80개 **소비재 기업 및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창출,** 지재권·SW 등 9개*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등 **서비스 수출 확대,**

* 지재권, 의료, 콘텐츠, 관광, SW, 물류, 교육, 금융, 유통 등 9개 분야

○ (주체) **수출 바우처 신설**, 무역금융 지원규모 확대(221→229조원),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확대(+30%이상) 등을 통해 금년도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 2,500억불 달성** ('16년 2,395억불)

* (수출 바우처 제도)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 해외전시회 등 **35개 수출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에서 원하는 사업·기관을 선택**할 수 있는 제도

* (마케팅 지원) '16년 2,878억원 / 25,310개사 → '17년 3,729억원 / 32,305개사

- 이와 함께 수출전문위원(PM) 확대(200→250명), 지자체 수출 지원 등으로 향후 **5년간 3.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**

○ (시장) **아시아·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**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**FTA 네트워크를 개선·확대**하고, 지역별 특성화 진출전략 추진

* 한-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타결, 한-AESAN FTA 자유화율 제고 등

○ (방식) 온라인 전용자금 신설(200억원) 등으로 **온라인 수출규모를 3조원 이상**('16. 2조원) 확대, **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유통기업** 등을 **전문 무역상사로 지정**하고 **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**

* 무역상사-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('16.14회→'17.20회) 및 무역보험 우대

○ (체계) **민·관 합동 총력체제 가동 및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**

* 업종별·지역별·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, 수출종합 점검회의(매월) 수시개최

*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, 애로를 해결하는 **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**

❷ 트럼프 정부 출범,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**'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'**

○ 우선 미국 新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**'對美 통상 협의회'**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

* ①한·미 FTA의 호혜적 성과 홍보, ②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노력 강화 및 통상현안 관리, ③인프라 진출,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

○ 또한, 한·중 FTA 이행위원회, 對中 통상점검 T/F 등을 통해 對中교역 및 투자장벽을 수시 점검하고 적극 대응

* 식품·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 지속제기, 상호인정협정 등 협력사업 확대

○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**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**으로 한 **민관 대응역량 강화**, 양자·다자 차원의 **공동대응 논의 주도** (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'17.9), **「新통상로드맵」 업그레이드**('17.3)

❸ **'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·질적으로 고도화'**하여 고부가·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**3년 연속 200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**

○ 美·中·EU·日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·기업 대상으로 1:1 투자설명회(IR)를 상반기 집중추진하고, **4차 산업혁명에 대응**해 28개 업종의 **'진입장벽 영향평가' 실시** 등 **근본적 개편안*** 마련('17.상)

* (유치업종·대상) 제조업 → 주력산업 고도화 + 신산업 + 서비스업 중심
(인센티브 지원 기준) 투자 규모 중심 → 경제 기여도 중심

○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**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**을 검토

❷ 두 번째 핵심분야는 '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'임

❶ 조선·철강·석유화학 등은 **'속도감 있는 구조조정'**을 추진하고,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**'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'** 노력을 적극 지원

○ 조선은 3社의 **자구계획을 신속 이행***하고, 상반기중 1.5조원 규모 **군함 발주** 및 **선박펀드 본격집행**(3.7조원 규모) 등 **新造 수요창출**

* ('16) 4.1조원 旣이행, 도크 3개 감축 → ('17~'18) **6.2조원 이행**, 도크 4개 감축

- **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** 설립(1분기), **LNG 추진선 시범도입**(4척), 선박 수리·개조업 진출(2개社 이상) 등 **고부가 분야 전환**도 적극추진

- 조선밀집 지역은 **기자재업체 업종 전환**('17년 R&D 등 2,400억원)과 해상풍력 등 **대체산업 육성**('17년 1.6조원, '20년까지 6.5조원)을 추진하고, **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**를 신규 도입('17上, 「균특법」 개정)

○ 철강·석유화학 업종은 **적정 규모의 설비감축 및 사업재편 등을 유도**하는 한편,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신규투자 등도 병행 추진**

* 공급과잉 해소 : (철강) 후판 실질 생산능력 감축 및 판재류·강관 사업재편, (석유화학) PS(폴리스티렌)·TPA(테레프탈산) 적정수준 설비감축

* 경쟁력 강화 : (철강) 스마트제철소 구축, (석유화학) NCC(기초 원료설비) 대형화 등

○ **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**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·R&D 등의 지원을 강화*해, 금년 중 **40건 이상의 사업재편** 추진

* (금융) 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(1천억원), (R&D) 산업부·중기청 R&D 최우선 지원

○ **스마트공장을 5,000개**(누적)**까지 대폭 확대**하고('16년 2,800개 구축),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·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**'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'으로 구축**

❷ **'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'**을 위해 규제개선, 집중지원, 융합플랫폼 구축,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 **민·관 합동 17조원** 투자

* 12대 신산업 : (시스템 산업) 전기·자율차, 스마트·친환경 선박, IoT가전, 항공·드론, 로봇, 바이오헬스, 프리미엄 소비재, (소재부품 산업) 첨단 신소재, AR·VR, 차세대 반도체, 차세대 디스플레이, (에너지 산업) 에너지신산업

규제개선	**'네거티브 규제심사' 대상을 12개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**
집중지원	R&D확대(3.3→ 3.7조원), 1조원규모 **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**(가칭) 운영 기업주도형 산학협력으로 **창의인재 6,500명 양성**('21년까지 3만명)
융합플랫폼 구축	융합 얼라이언스를 **12개 신산업 전분야로 확대** (9 → 12개)
초기시장 창출	**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(300대), 수소차(25대), 첨단 서비스로봇(50대) 등의 테스트베드 및 홍보 기회**(Show Case)로 활용

○ 전기·자율차, 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, **차세대반도체·유통·3D 프린팅** 등은 새로운 전략 수립('17.上)

○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,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**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**

신재생	**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** (발전공기업 장기계약 의무 부과) **농촌**('17년 1,000, '20년 1만호, 재정+민자) **태양광 확산**
ESS	**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 시행** (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 : 10→50%, ESS용량에 따라 추가 차등지원 : 최대 20% 추가할인) 고밀도 배터리 등 **핵심기술 개발** ('16년 303억원 → '17년 437억원)
스마트 미터 등	스마트미터, **'20년까지 2,200만 전기소비자 전체**에 보급 ('17년 450만) 에너지 **빅데이터 민간 개방**을 통한 **新**비즈니스 확산

○ 드론 등 **융합 신제품** 중심으로 **안전관리 체계***도 대폭 강화하고, **'제품안전관리원'** 신설, 리콜제도 전면 개편 등 추진('17.上)

*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기준·안전관리전략 마련('17.上),

❸ 세 번째 핵심분야는 '중소·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·전통시장 활력제고'임

❶ 기업단계별(수출초보→유망→강소→선도기업)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**'중소·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'**

○ (판로) 중소기업 **우수 혁신제품 DB(3천개)를 구축**, 이를 공영 홈쇼핑,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하여 판매촉진 지원

○ (R&D) 창업·초보기업→혁신기업→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에 **약 1조원 지원** (총 9,479억원)

* 기업성장 R&D : 창업·초보(2,369억원)→혁신형(2,900억원)→중견(1,228억원) 대학·연구기관 협력(1,308억원), 기업간 협력(1,674억원)

○ (자금) 중소기업 **정책금융을 103조원**('16년 97조원)으로 확대하고, 정책자금 금리인하('16.하, 2.47% → '17.1Q, 2.3%)도 추진

○ (인력)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**미래성과공유제 도입**, 핵심 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**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** (1.9→5.7만명)

❷ **'소상공인, 전통시장,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'**를 위해 자금·인프라 구축·컨설팅·교육 등을 총력 지원

○ (소상공인) **창업-성장-재기 등 全주기 지원**('16년 1.55→'17년 1.62조원)

* 정확한 상권정보(창업과밀지수 등) 제공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(연 450명), 전문기술 교육(8,000명), 경영 컨설팅(5,000건), 한계 소상공인 1만명 재기 지원 등

○ (전통시장) **문화·관광 등과 연계**한 시장별 특성화,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지원 확대('16년 3,210→'17년 3,452억원)

*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한 특성화 시장 96개 신규 지정(566억원),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·체험·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(17개),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확대 ('16년 405개 → 500개 이상)

○ (영세상점가) 「자율상권법」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 시 환경·시설정비 지원(연 5개소)

4 네 번째 핵심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,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.6조원* 투자 등을 통한 **'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'**임

* 에너지안전 8.4조원,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.2조원

❶ 원전 등 **'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'**

○ (원전) **모든 부지의 안전성 점검,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**(0.2→0.3g, ~'18.상)

* 신규건설 원전은 0.5g(규모7.4), 장기적으로 0.6g(규모7.5) 기술개발 추진

○ (기타) 전력·석유·가스 시설의 **내진기준을 일괄정비**

* 핵심시설(0.3g), 일반시설(0.2g), 기타시설(0.15g) 등 3단계 차등 관리

○ (사이버 보안) 주요 에너지시설(11개 공공기관)의 대응체제 강화

* 인력 : ('16) 320명 → ('17) 414명 / 예산 : ('16) 843억원 → ('17) 1,110억원

○ (취약계층) 전통시장 점포(5.5만개)·아동센터(350개)·서민층(5만호)·고령자 가구(6.5만호) 등에 **전기·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지원**

❷ **'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'**을 통해 안정적·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

○ (중장기 대책) **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**('17~'31) 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('17~'31) 수립, 제4차 석유비축계획(14~'25) 조정

○ (친환경 생산)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,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**'30년까지 11.6조원 투자**('17년 1,951억원)

○ (효율적 소비) 산업·수송·공공 등 부문별 효율적 소비 강화

산 업	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지속('17년, 3,500억원) 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30%를 넘는 품목(냉장고, 공기청정기 등) 기준 상향
수 송	3.5톤 이상의 중대형 차량(186만대)까지 연비표시 대상 확대
공 공	연면적 1만㎡이상 신축 공공건물 BEMS(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) 의무화

○ (제도개선) 에너지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
전 력	**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**을 위해 '17년 중 국제 컨설팅 추진 신재생 전력 **직접 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** (전기사업법 개정)
가 스	**직수입자간 가스매매 제한적 허용**(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)
원 전	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**「고준위 관리절차법」 제정 추진**

❸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**'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'** 추진

○ **(에너지 바우처) 현행 수급대상자 확대**를 지속 검토하고, **지원금액도 상향조정** (가구당 평균 **10.8만원 지원 → 11.6만원**)

○ **(주거환경 개선)**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**지원단가 상향을 검토**하고(연 3만가구), **연료전환**(연탄 → 가스·석유)**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**

○ (전기요금 할인) 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

* 장애인·기초 수급자 등(월8,000→16,000원), 차상위계층(월2,000→8,000원)

【 Ⅲ. 기대 효과 등 】

□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

◇ 수출 5,100억불 이상 달성



◇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창출



◇ 중소 · 중견기업, 소상공인 활력 제고



◇ 에너지안전 강화 및 친환경 발전 확대



□ 주형환 장관은 “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, 산업부는 **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,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‘봉산개도 우수가교**(逢山開道 遇水架橋)’의 자세로,

❶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
❷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
❸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 활력 제고
❹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“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우성훈 서기관(☎ 044-203-42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